

- 청년 세대 눈높이에서 문자와 기록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
- 박물관 현장을 담은 영상 콘텐츠로 국민과의 소통과 참여 기회 확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지난 9월 19일 제1기 ‘모우먼트(MoWment)’ 청년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선발된 5개 팀의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 이번 행사는 기자단의 10개월간의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우먼트(MoWment)’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의 약칭인 ‘모우(MoW)’와 순간을 뜻하는 ‘Moment’를 결합한 이름으로 청년들의 시선에서 박물관의 순간들을 기록하고 전하는 기자단의 의미를 담고 있다.

청년 기자단은 앞으로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주요 사업과 행사를 직접 취재·기록하며, 영상 및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역할을 맡는다. 첫 활동으로는 박물관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이후 제6회 기획특별전 개막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활동이 종료되는 2026년 7월에는 성과보고회와 수료식이 열리며, 우수한 활동을 펼친 팀에게는 ‘우수 콘텐츠상’이 수여된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엄성근 사무총장은 발대식에서 “이번 기자단이 다양한 언어와 시각을 바탕으로, 청년 세대만의 감각과 창의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문자와 기록의 가치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 이미지 자료 1식(2장). 끝.



[사진1] 발대식 단체사진



[사진2] 발대식 현장사진